

체험담 : 서울3방면 서대문권 남자부장 손병훈 (2019.3 발표)

안녕하십니까

서울3방면 서대문권 남자부장 손병훈입니다.

저는 어느 이름 없는 건물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나, 지독한 가난속에 할아버지께서 이웃집에 젖동냥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능이 낮았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후 돌아가셨고, 새어머니의 차별로 인한 폭력, 경제고 등으로 학창시절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청소년기 비행을 일삼았고, 모든 원망이 부모를 향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 몇 번이나 시도하고 실패하던 중에,

“위대한 사람이란, 환경이나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자신의 마음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케다 선생님의 스피치를 접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결의하며, 어려운 현실을 신심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승 덕분에 건진 목숨, 광포 사명을 위해 살자고 정하고, 부족하지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상 체중에 20여kg가 모자랄 정도로 말라서 어지러움증이 있었는데, 의사가 치료비 전액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고 할 만큼 특이증상이자, 연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세계청년부총회 도전을 통해 평생 완치가 안 된다는 연구대상이었던 질환을 완치할 수 있었고, 그 체험의 환희로 남자부 사명에 더욱 투쟁해 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대문권 남자부장의 사명을 받고, 2020년 10만 국사 투쟁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이 굉장한 투쟁의 기회에, 나의 숙명전환의 때라 생각하고 신심의 힘을 시험해보자고 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5시간의 창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스승께 보은하겠다는 결의,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다짐 속에 하루 1시간의 수면에도 피곤을 잊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난도 다투어 일어났습니다. 완치된 줄로만 알았던 스트레스성 두통, 어지러움증은 다시 재발하여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상사의 모함으로 인해 회사를 다니는 것도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통장잔고로 인해 500원짜리 머핀조차 구입을 주저하는 아내의 모습, 인간고, 병고, 경제고의 모든 고난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매일 울며 창제하다 불단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저서와 어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절대지지않겠다고, 반드시 스승께 후계의 바통을 당당히 이어받겠다고 어본존 앞에 매달렸습니다.

새벽을 뚫고 권의 멤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행복해 지자고 창제로 활동으로 달리는 나날이었습니다. 나의 괴로움이 깊을수록 멤버들의 승리와 행복도 처음 만나는 회우의 행복도 간절해 졌고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불법을 통해 스승을 만나 행복해 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하는 속에 전통의 2월 한계를 부수는 전국 최고의 포교를 멤버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만두면 안 되는 인재로 인정받았고, 성공률이 반반이라 했던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사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것은 아니어도, 아내에게 선물도 해주고 미래를 위해 마음껏 저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있으며, 결혼 후 학회활동으로 인해 매일 늦게 귀가하는 남편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려 신심을 그만두겠다고 매일 울던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저를 기다리며 창제를 보내주는 아내로, “당신은 신심이 없으면 안되니 목숨 걸고 하라”며 지금의 투쟁에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새어머니의 폭력으로, 그런 여성과 결혼한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단 한번도 속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고, 항상 대화의 끝은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연히 모인 가족 식사자리에서, “사명하느라 열심히 라고 들었다. 수고한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마음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제가 한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 도전했는데 무슨 공덕을 받았느냐 라고.

최고의 절복 결과, 멤버들의 공덕과 인재확대, 저의 병고의 극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느끼고 배운 저의 가장 최고의 공덕은 바로, 마음의 변화, 즉 인간혁명입니다. 제가 일으킨 마음의 변화, 인간혁명의 굉장한 힘을 반드시 주위의 모든사람들에게 알려가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으로부터 창가 3대까지 “법화경의 행자의 기원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는 어성훈을 증명해 오셨듯이 저 또한 불법을 수지 하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권 남자부장으로 투쟁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서대문권 남자부의 숙업을 전환하지 못하면 “나는 없다” 라는 마음입니다.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한 스승의 제자로 전원 성장하여 복운 가득한 최고의 인생을 각자 걸어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의 사명은 이것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숭선의 투쟁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10만 국사라는 굉장한 투쟁의 이 때에, 한국 최고의 남자부 인재성 구축으로 스승께 보은하고, 사회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더욱 행복한 승리의 인생을 거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